

르네상스 소네트 속의 죽음관: 시드니, 셰익스피어, 그리고 그레빌을 중심으로

배 경 진

호서대학교

I. 들어가며

르네상스 시대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중요한 지식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미 충분히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기라 할 수 있다(Stein 6). 죽음에 관한 대부분의 기초 지식이 교회 예배, 교회 연극, 지인의 임종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고 경험되었다면, 성경, 주석, 논문, 기도서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익 철학, 그리스 고전 문학 등을 통해 르네상스 시기에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죽음 이후의 삶에 집착했던 중세와는 다르게 자리하게 된다. “무엇을 하든, 너의 종말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니”(구약 집회서 7장 36절)라는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는 경구는 중세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제하는 중요한 명제였다.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적인 특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르네상스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와는 다른 이미지로 죽음을 표현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중세 문학작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timor mortis)을 조장하는 해골이나 창 그리고 모든 이와 함께 하려고 상대방을 부른다는 점에서 춤으로 죽음이 이미지화 되었다면, 르네상스 문학은 죽음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폭군, 파괴자 등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홍성숙, 「르네상스 시에 나타난 죽음관」 178). 이승에서의 죄를 참회하고 천국에의 은총을 받는 죽음 이후의 삶에 집착했던 중세와 달리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삶 모두를 추구하며 불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한 볼 수 있다(홍성숙, 「죽음에 대한 비교 연구」 437).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We all know we *shall die*, 이텔릭 강조)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We *must die*, 이텔릭 강조)는 기독교의 교리는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의 형벌임을 강조한다(Stein 7). 죽음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신의 형벌이라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신의 영원한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변화시켜야 죽음의 공포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놀드 스타인(Arnold Stein)은 중세의 죽음관이 삶에서 죽음으로의 과정을 자의적으로 탐구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16).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you / we / all must die—죽음에 관한 교훈은 인간 개개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과 사고를 배제한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는 인생무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이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유한성, 즉 죽음의 개념에 대한 반응이 변화한다.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나 베이컨 (Francis Bacon, 1561-1626)과 같은 철학자들이 보는 죽음은 기억되어야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기에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Stein 35). 베이컨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죽음 자체는 그렇게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이들의 질시를 멈추게 하고 사후 명성의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66). 몽테뉴도 죽음을 기억하되 한편으로 죽음을 무시하라고 권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며 동시에 무시하는 이 모순적인 방법이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부과된 유한성을 인식하며 동시에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역설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해 죽음이 갖는 가장 큰 이점을 죽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른 방법을 취해보자; 죽음으로부터 낯설을 빼앗아 보자; 죽음을 자주 방문해 보자, 죽음에 익숙해 보자; 죽음 이외의 것을 생

각하지 말아보자. . . 우리는 죽음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곳에서 죽음을 기다려 보자. 죽음을 연습하는 것은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죽는가를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어떻게 죽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복종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준다.¹

To begin depriving death of its greatest advantage over us, let us adopt a way clean contrary to that common one; let us deprive death of its strangeness; let us frequent it, let us get used to it; let us have nothing more often in mind than death. . . . We do not know where death awaits us: so let us wait for it everywhere. To practise death is to practise freedom. A man who has learned how to die has unlearned how to be a slave. Knowing how to die gives us freedom from subjection and constraint. (Montaigne 96)

인간의 유한성을 상기하며 유한함을 즐기라(“죽음을 연습하는 것은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다”)는 조언은 이승의 삶을 마음껏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적인 조언과 상통한다. 몽테뉴는 죽음에서 삶으로 왔듯이 다시 삶에서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과 지난하고 비참한 인간의 유한한 조건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등 죽음의 장점도 역설한다.

몽테뉴와 베이컨에게 있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죽음의 예측불허성, 인간 조건의 유한성과 불확실성 등을 환기하고 이를 극복하는 다소 실존적인 방법이였다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을 하든, 너의 종말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니”라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는 죽음을 죄와 구원과 연결 시키는 중세적 신학질서를 반영한다. 죽음은 인간의 불복종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므로, 이승에서 신을 경외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선행을 쌓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철학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하였다면,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강조하는데, 죽음과 사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¹ 본문의 모든 인용은 저자의 번역임.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한 벌이지만 죄를 참회하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존 던(John Donne, 1572-1631)은 죽음에게 “뽀내지 말라”(Death, be not proud)고 호령하며 육체적 죽음을 영원한 영혼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한다: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고 / 죽음은 더 이상 없으리” (One short sleep past, we wake eternally / And Death shall be no more). 던은 죽음 이라는 행위 이후의 영혼의 상태에 주목함으로써 죽음을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머무는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통관 절차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존 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는 여전히 “우리”의 경험으로서 죽음을 노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발견, 자아의 발견일 것이다. 따라서 르네상스 죽음관의 중요한 변화는 시인들이 죽음에 대한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성찰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의 가치관, 고전 문학과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대변되는 인문주의, 종교 개혁, 도시의 확장으로 대표되는 초기 근대성 등 다양한 사상과 현상이 혼재하며 발전했던 르네상스 시대에서 시인마다, 심지어 같은 시인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때로는 다르게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양하게 재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르네상스 시대 연작 소네트 작가인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 1554-1586)과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 그리고 브룩 풀크 그레빌 남작(Baron Brooke Fulke Greville, 1554-1628)의 소네트 연작 시에 재현된 죽음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에 주목하며 죽음이라는 주제가 시인의 주제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차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죽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주제와 이미지는 파괴적인 시간의 힘, 그리고 그 시간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의 유한성일 것이다. 사랑을 주제로 한 연애시인 르네상스 소네트에서 당대 시인들의 죽음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데, 사랑에 빠진 시인은 사랑의 영원성에 몰입하며 시간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숙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까지, 그대와 나는 정녕 무엇을 했던가?”(I wonder, by my troth, what thou and I / Did, till we loved?, John Donne “The Good-Morrow”)라고 한탄하는 사랑에 빠진 시인은 영원한 사랑

을 갈망하며 비로소 시간의 개념에 눈뜨게 된다. 진실된 사랑은 “세월의 놀림감”(Time s fool, Shakespeare *The Sonnets* 116, 9)이 아니지만, 영원한 사랑에 대해 숙고하면 할수록 시인이 부딪히는 문제는 사랑하는 여인과 시인 자신은 자연의 법칙에 종속된 “세월의 놀림감”이라는 유한한 현실이다. 소네트 시인들에게 시간은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시인의 주적이다 (Hamilton 82). 따라서 시드니, 셰익스피어, 그리고 그레빌의 연작 소네트에 재현된 죽음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연인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유한성, 욕망, 죄, 구원 등의 논의와 연결될 것이다.

II. “나의 불쌍한 영혼은 그 병을 견디니”

(For my poor soul, which now that sickness tries, *Astrophil and Stella* 94.6)²

시드니의 소네트들은 셰익스피어나 스펜서(Edmund Spenser, 1552-1599) 등 다른 엘리자베스 시기의 소네트 작가들과 달리 사랑에 대한 시간의 영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해밀턴(A. C. Hamilton)은 작품을 쓸 당시 시드니가 다른 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었다는 점, 그리고 시작 활동은 시드니의 “선택되지 않은 직업”(unelected vocation)이었기에 시드니가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얻어지는 시적 불멸에 대해 다른 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한다(82). 하지만 해밀턴은 사랑과 사랑에 대한 시간의 영향력에 대한 주제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만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영국 최초의 소네트 연작시인 시드니의 『에스트로필과 스텔라』(*Astrophil and Stella*, 1591)에도 시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담겨 있음을 지적한다(83). “진실로 사랑하며”(Loving in truth)로 시작하는 연작시의 첫 번째 소네트의 시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시드니 연작시의 주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이상적인 사랑도 아니고 현

² *Sir Philip Sidney*, ed. Katherine Duncan-Jones (Oxford: Oxford UP, 1989). 앞으로의 시드니 소네트 인용은 이 책을 따르기로 한다.

재의 사랑이 지향해야 되는 불멸의 영원한 미래도 아니다. 시드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랑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현재의 사랑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 시드니가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사랑의 부재이지, 그 사랑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파괴되거나 빼앗기는 것은 고뇌의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한다.

유부녀인 스텔라(Stella)-리치 부인(Lady Rich)을 원하는 시인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유죄인 욕망이고 바람이다. 시인의 사랑을 거부하는 무정하고 엄격한 그러나 고귀한 여인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그녀의 부재로 고통 받는 시인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이미 지옥이다.

나는 아마도 (불행한 단어여), 오 나는 아마도,
그리고 나서는 나의 축복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끔찍한 지옥의 밤에 싸여,
비참한 내가 어떻게 천상의 낮을 놓쳤던가를 발견한다.

I might (unhappy word), O me, I might,
And then would not, or could not, see my bliss;
Till now, wrapped in a most infernal night,
I find how heavenly day, wretch I did miss. (*Astrophil and Stella* 33.1-4)

이 죽음과도 같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인은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의 유한한 육체 너머의 천상의 영혼의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이 갈망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소멸되는 유한한 존재임을 안다.

진실로, 참다운 미는 덕이고,
그것에 비해 이 지상의 미는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
그 성분은 소멸하는 유한한 요소들로 만들어 진다.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한낱 순례자일 뿐이니,
영혼은 우리의 고향을 향해 올라 가야한다.
그렇도다, 그래도 진실로, 나는 스텔라를 사랑해야 한다.

True, that true beauty virtue is indeed,
Whereof this beauty can be but a shade,

Which elements with moral mixture breed;
True, that on earth we are but pilgrims made,
And should in soul up to our country move;
True; and yet true, that I must Stella love. (*Astrophil and Stella* 5. 9-14)

그러나 자신들의 사랑을 종교적인 사랑으로 정신적으로 승화시키는 페트라르카적 여느 시인과 달리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덕목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이상적인 영혼의 구원을 거부한 채, “그래도 진실로, 나는 스텔라를 사랑해야 한다”며 스텔라를 사랑하는 자신의 욕망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스텔라의 거절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시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채, 영원한 고통에 빠진 상태로 연작시는 중단된다. 마지막 소네트에서 “당신을 위한 나의 비에 속에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되고, / 당신을 위한 나의 기쁨 속에서 당신은 나의 유일한 괴로움이 된다”(in my woes for thee thou art my joy, / And in my joys for thee my only annoy, *Astrophil and Stella* 108.13-14)라는 ‘비에 속의 기쁨이며 동시에 기쁨 속의 비에’라는 가장 상투적인 페트라르카적 수사에 갇힌 시인의 상태는 어둡고, 절망적이며, 비참하다. 그러나 시인은 강력한 사랑의 힘을 대면한 채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고통을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견디어 내고자 한다.

그러니 당신[슬픔]이여 (당신은 할 수 있기에) 한탄하라,
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 불쌍한 영혼은
감각에 감각 자체를 거부하는 그 병을 견딘다,
비록 죽음의 전령들이 그곳에서 그의 무리들을 머무르게 하고 있어도.

Do thou then (for thou canst), do thou complain,
For my poor soul, which now that sickness tries
Which even to sense, sense of itself denies,
Though harbingers of death lodge there his train.
(*Astrophil and Stella* 94.5-8)

슬픔의 본성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비참함 속에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고통이며 시인은 사랑과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고통 받는 내면의 갈등을 대면한 채,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경험주의자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죽음도 거부한 채, 시드니는 죽음과 유한성을 매우 역설적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비애 속의 기쁨이며 동시에 기쁨 속의 비애'라는 페트라르카적 고통에 갇힌 시드니는 역설적으로 영원히 그 현재적 고통에 삶으로써 죽음과 유한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과 파괴적인 시간은 시드니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시드니는 “그렇다면 사랑은 죄이고, 나를 죄 짓도록 내버려두라”(Then love is sin, and let me sinful be, *Astrophil and Stella* 14.14)라고 호언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인정하여 회개를 통하여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을 거부한다.

K C I

III. “죽음도 나에게 굴복하도다”(Death to me subscribes, *The Sonnets* 107.10)³

셰익스피어의 154편의 소네트 중 젊은 귀족에서 현정된 1~126의 소네트에는 죽음과 망각을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가는 잔인한 시간과 시간의 파괴적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잔인한 폭군인 시간”(this bloody tyrant Time, *The Sonnets* 16.2), “집어삼키는 시간”(Devouring Time, *The Sonnets* 19.1), “발 빠른 시간”(swift-footed Time, *The Sonnets* 19.6)은 “시간의 잔인한 손”(Time s fell hand, *The Sonnets* 64.1)에 “날카로운 낫”(scythe, *The Sonnets* 60.12), 또는 “굽은 낫”(his bending sickle, *The Sonnets* 116.10)을 들고 “부단의 속력”(thy continual haste, *The Sonnets* 123.12)으로 도둑처럼 밀행하며 (Time s thievish progress, *The Sonnets* 77.8) 결코 쉬지 않고 파괴활동을 한다. 시간의 무자비성과 파괴성 앞에서 유한한 인간은 “입을 벌린 무덤”(mouthèd graves, *The Sonnets* 77.6)을 상기해야 함을 시인은 강조한다. 시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귀족에게 들이치는 파도와 같이 무섭게 달려와 집어삼키는 시간의 무자비성과 파괴성에 대해 경고한다.

파도가 조약돌이 깔린 해변으로 들이치듯이,
 우리의 시간은 종말을 향해 달음질치도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자리를 바꾸며,
 계속되는 노고 속에서 앞을 다투는 도다.
 한 때는 빛의 바다 있었던 탄생은,
 성숙으로 기어간다, 그것에 의하여 정점을 찍고 나면,
 짓궂은 일식이 그의 영광에 맞선다,
 그리고 시간은 주었던 선물을 이제는 파괴한다.
 시간은 젊음에 주어졌던 화려함을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만들고,
 아름다운 이마에 주름을 파고,
 자연의 진리인 진귀한 사람을 먹이로 하니,
 베어버리는 그의 낫 끝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는다.

³ *The Sonnets*, ed. G. Blakemore Evans (Cambridge: Cambridge UP, 1996). 앞으로의 셰익스피어 소네트 인용은 이 책을 따르기로 한다.

Like as the waves make towards the pebbled shore,
 So do our minutes hasten to their end.
 Each changing place with that which goes before,
 In sequent toil all forwards do contend.
 Nativity, once in the main of light,
 Crawls to maturity, wherewith being crowned,
 Crookèd eclipse gainst his glory fight,
 And Time that gave doth now his gift confound.
 Time doth transfix the flourish set on youth,
 And delves the parallels in beauty's brow,
 Feeds on the rarities of nature's truth,
 and nothing stands but for his scythe to mow. (*The Sonnets* 60.1-12)

셰익스피어가 『소네트』에서 드러내는 사랑의 노래에는 시간과 죽음, 그리고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깊게 배어 있다(임성균 145).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유한한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인은 소네트 1-17까지의 “생식 소네트”(procreation sonnets)를 통해 자연의 번식 속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지만, 소네트 18에서는 자신의 시가 영원히 살아 젊은 귀족에게 생명을 준다고 자신한다. “내 시는 시간의 잔인한 손을 물리치고 / 그대를 찬양하며 길이 남으리라”(And yet to time in hope my verse shall stand, / Praising thy worth, despite his cruel hand)는 소네트 60의 마지막 2행 연구는 젊은 귀족을 후세에 기억시키고 영원히 유지시켜 줄 매체로서의 시에 대한 시인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시의 힘으로 젊은 귀족을 시간과 죽음에서 지켜내고 더 나아가 그에게 불멸의 명성을 주고자 하는 시인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만, 다음의 소네트에서는 젊은 귀족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초라하고 “평범한” 시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어쩌면 내가 그대의 묘비를 쓰게끔 오래 살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흙속에서 썩고 있을 때, 그대 살아있으리라,
 지금부터 죽음은 그대의 기억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비록 내게 속하는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해도.
 지금부터 그대의 이름은 영생을 얻으리라,

비록 나는 한번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야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단지 평범한 무덤을 내어줄 것이다,
그대가 사람들의 눈 속에 누워 안장이 될 때
그대의 기념비는 나의 온화한 시가 될 것이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눈들이 그것을 너무 입을 것이고,
태어날 혀들이 그대의 존재를 이야기 하리라,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대는 여전히 살리니 (이러한 힘이 내 펜은 있으니)
숨결이 약동하는 곳, 심지어 사람들의 입 속에서도.

Or I shall live your epitaph to make,
Or you survive when I in earth am rotten,
From hence your memory death cannot take,
Although in me each part will be forgotten.
Your name from hence immortal life shall have,
Though I (once gone) to all the world must die;
The earth can yield me but a common grave,
When you intombèd in men s eyes shall lie:
Your monument shall be my gentle verse,
Which eyes not yeat created shall o ver-read,
And tongues to be your being shall rehearse,
When all the breathers of this world are dead;
You will shall live (such virtue has my pen)
Where breath most breathes, even in the mouths of men. (*The Sonnets* 81.1-14)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한 젊은 귀족의 불멸은 자신하지만, 자신이 죽어 흙이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유한한 조건과 죽음의 과정을 사 고한다. 소네트 71에서 시인은 젊은 귀족에게 자신이 죽고 난 후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인의 대수롭지 않은 이름을 듣고 그를 비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늙 음과 함께 시적 자신감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윤민우 298).

아, 아마도 내가 거의 흙이 될 무렵에

그대가 이 시구를 읽더라도
 아 하찮은 내 이름을 입에 담지 마오,
 아니, 그대의 애정을 나의 생명도 더불어 쇠멸케 하오.
 현명한 세상이 그대의 비탄의 원인을 찾아서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그대가 조소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O if (I say) you look upon this verse,
 When I (perhaps) compounded am with clay,
 Do not so much as my poor name rehearse,
 But let your love even with my life decay,
 Lest the wise world should look into your moan,
 And mock you with me after I am gone. (*The Sonnets* 71.9-14)

그래서 인지 젊은 귀족에게 바치는 마지막 연작시인 소네트 126에서는 자연의
 총아인 젊은 귀족도 유한한 인간의 조건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죽음에 넘
 어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인간 조건의 진실을 시인은 인정한다.

아, 고운 소년이어, 그대는 시간의 변덕스러운 모래 시계와
 낮을 그대의 손아귀 안에 넣고
 기울어짐에 따라 점점 원숙하게 되니,
 시들어 가는 그대 애인들에게, 그대 원숙해진 고운 자태를 보이는 도다.
 쇠퇴를 다스리는 여왕인 자연이
 그대가 전진함에 따라, 그대를 뒤로 잡아당겨 그대를 보류시킴은
 그대를 이 목적에 두고자 함이다 - 그녀의 기술이
 시간을 육보이고 비참한 시간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목적.
 그러나 자연을 두려워하라, 오 그녀의 마음에 든 자연의 총아인 그대,
 자연이 한 때 자신의 보물을 유지할 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간직하지는 않
 으니!
 그녀의 정산은 (비록 늦춰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하니,
 그녀의 결산은 그대를 양도하는 것이다.

O though my lovely boy, who in thy power
 Dost hold Time s fickle glass, his sickle, hour;
 Who has by waning grown, and therein show st
 Thy lovers withering as thy sweet self grow st;

If Nature (sovereign mistress over wrack),
As thou goest onwards still will pluck thee back,
She keeps thee to this purpose, that her skill
May Time disgrace, and wretched minutes kill.
Yet fear her, O though minion of her pleasure,
She may detain, but not still keep, her treasure!
Her audit (though delayed) answered must be,
And her quietus is to render thee. (*The Sonnets* 126.1-12)

젊은 귀족이 시간 속에서 계속 살며 더 원숙해지고 아름다워진 것은 파괴자인 시간과 대척점에 있는 자연이 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인은 자연이 그녀의 보물이요 총아인 젊은 귀족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연은 결국 죽음에게 젊은 귀족을 양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연을 두려워하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인과 젊은 귀족,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연도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파괴자, 죽음이다.

IV. “그러나 당신의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 놓으라”

(*But steps to your eternity, Caelica* 82.6)

워릭의 성 마리 교회에 새겨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레빌의 묘비는 궁정인, 정치가, 시인, 그리고 죄 많고 유한한 인간 그레빌을 단적으로 정의한 문구이다: “폴크 그레빌 /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하, / 제임스 왕의 고문관 / 필립 시드니 경의 친구 / 죄의 전리품” (*Fulke Greville / Servant to Queen Elizabeth, / Councillor to King James, / Friend to Sir Philip Sidney, / Trophaeum Peccati*). 동갑내기 죽마고우인 시드니가 1586년 32세의 나이에 네덜란드 원정 전쟁에서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그레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끼친 사건이었다. 그레빌은 저지대 국가(Low Countries)로 가서 절친했던 시드니가 전사한 곳에서 싸우기를 원했지만 시드니라는 촉망받는 궁정인을 이미 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거부로 참전하지 못하고 여왕의 뜻을

받들어 궁정에서 주요 공직을 거친다. 여왕이 죽은 뒤 잠시 은퇴했지만 다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를 위해 일했고 1628년 하인의 오해로 칼에 찔려 죽게 되었을 때 그레빌은 잉글랜드에서 손꼽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천상의 여인 카엘리카(Caelica)에 대한 연작 소네트집 『카엘리카』(1633)의 몇몇 시와 해적 판 연극 단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레빌의 모든 작품은 그의 사후에 출판된다. 페트라르카적 소네트가 영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1577~1580년에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엘리카』는 1600년경 대부분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소네트의 순서는 작품의 연대기적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본다(Gunn 10).⁴ 1590년대 셰익스피어와 스펜서를 비롯하여 영국의 시인들에게 소네트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시드니의 사후에 미완으로 출판된 『에스트로필과 스텔라』는 1582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트로필과 스텔라』가 시인이 짧은 시간 동안 격렬하게 경험한 페트라르카적 사랑의 갈등과 고통을 영국적인 소네트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실험한 연작 시집이라면, 『카엘리카』는 시드니와 마찬가지로 페트라르카적 실험에서 시작했지만, 20여년 동안 주제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변화를 겪으며 연작된 소네트집이다. 『카엘리카』의 109개의 소네트 중 41개만이 소네트 형식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시의 4분의 3이 페트라르카적 사랑을 다루고 있다면, 큐피드에게 이별을 고하는 소네트 84 이후부터는 종교적 회심에 집중한다. 1939년 그레빌의 시와 드라마를 편집한 제오프리 버러(Geoffrey Bullough)에 의하면 『카엘리카』는 소네트 연작시라기 보다는 그레빌이 사후에 남기고 싶어 했던 모든 단편시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Devereux 19). 에스트로필이 '비에 속의 기쁨이며 동시에 기쁨 속의 비애'라는 영원한 모순에 빠져 이성적인 덕목과 육체적인 욕망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에스트로필과 스텔라』 곳곳에서 걱정적인 시드니-에스트로필에게 조언하던 이성적인 친구 그레빌-뮌라필(Myraphill)은 여인의 사랑과 그 사랑의 구원의 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면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엘리카』의 전반부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처한 시인에게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평안과 안정을 제공

⁴ 『카엘리카』가 1582년에서 1600년에 대부분 쓰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레빌이 1628년 사망 직전까지 평생에 걸쳐 본 작품을 수정하고 확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Ho 55).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는 끝없이 움직이고,
별들은 자신들의 궤도에서 끝없이 돌고,
변화하고, 새로운 물질로 형성되기를 좋아하는
(변화의 여왕인) 자연은 여전히 옮겨 다닌다.

우리의 멋진 신, 운명은 달라지는 것을 좋아하고,
공간은 그 안에 놓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시간은 지나간 시간 너머로 나아가고,
지구는 태양신 포이보스의 방랑하는 코스로 은혜를 입는구나.

공기는 여전히 움직이고 그 움직임으로 치우고,
불은 하늘로 올라가 별들에게 불을 공급하고,
물은 흘러 모든 것을 닦게 하고,
지구는 여전히 서 있지만 변화에서 변화를 낳는구나.

여름이 무르익게 한 지구의 식물은 겨울이면 시들고,
모든 피조물은 변덕스러운 어머니(지구)안에 놓이니,
인간은 지구로 만들어 졌고 인간을 위하여 지구가 만들어 졌으니,
여전히 죽으며 살고 살면서 죽는다.

단지 운명처럼 아름다운 뭐라만이 결코 변하지 않으니,
다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모든 변화의 운명을 담고 있도다.

The world, that all contains, is ever moving,
The stars within their spheres for ever turned,
Nature (the queen of change) to change is loving,
And form to matter new, is still adjourned.

Fortune our fancy-god, to vary liketh,
Place is not bound to things within it placed,
The present time upon time passed striketh,
With Phoebus wandering course the earth is graced.

The air still moves, and by its moving cleareth,

The fire up ascends, and planets feedeth,
The water passeth on, and all lets weareth,
The earth stands still, yet change of changes breedeth;

Her plants, which summer ripens, in winter fade,
Each creature in unconstant mother lieth,
Man made of earth, and for whom earth is made,
Still dying lives, and living ever dieth;
Only like fate sweet Myra never varies,
Yet in her eyes the doom of all change carries. (*Caelica* 7.1-18)⁵⁶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변화 중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절대 영원의 상징인 여인에게서 위안을 얻었던 그레빌은 큐피드의 노예가 되어 여인에 대한 사랑의 절망과 고통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작별을 고한다. 페트라르카적 사랑에 빠진 그레빌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이름대로 비통하고(grieve) 쇠약한 (ill) 그레빌 자신과 더 황폐해진 심신이다: “Greive-ill, pain, forlorn estate”(Caelica 83.98). 이제 시인이 추구하는 사랑은 “평화”이고, “완벽의 정신”(Perfection s spirit), “정신의 여신”(goddess of mind)이며, 선함의 종착점인 “순수한 선”(A simple goodness), 모든 변화를 초월하는 “열정의 결정체”(A quintessence of passions)이다(Caelica 85). 소네트 84에서 큐피드에게 작별을 고한 후 소네트 85에서 새로운 사랑을 정의한 시인은 소네트 86에서 인간의 유한성, 변화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 두 가지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Devereux 27). 하나는 스토익 정신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견디어 내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여, 자신을 견뎌라, 저 구름들은 사라질 것이니”(The

⁵ *Selected Poems of Fulke Greville*. ed. Thom Gunn (Chicago: The U of Chicago P, 2009). 앞으로 그레빌의 시 인용은 이 책을 따르기로 한다.

⁶ 변화무쌍하고 유한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상념으로 실의에 찬 시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유일한 위안을 준다는 주제와 수사법, 3연까지 이어지는 한탄과 절망,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행 연구에 등장하는 플라톤적 이상으로 상징되는 여인을 통해 극적으로 시인의 절망을 해결하는 방식은 엘리자베스 시대 소네트의 전형적인 작풍이다. 그레빌의 소네트 7은 셰익스피어의 “감미롭고 고요한 명상의 궁전으로 / 지난 옛일의 기억을 불러 올 때면”(When to the sessions of sweet silent though / I summon up remembrance of things past)으로 시작하는 소네트 30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주제를 진행시키고 있다.

man, endure thyself, those clouds will vanish, *Caelica* 86.9). 두 번째 방법은 천상의 여인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고 유한한 이 세상을 버리고 “천상”(heaven)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한다. 페트라르카적 사랑이 “용광로”(Through that dark furnace, *Astrophil and Stella* 108.3)와 같은 욕망과 열정으로 우리를 끓여 넘치게 만들었다면 그리하여 우리를 소진시켜 버린다면, 천상의 불꽃은 우리를 밝게 깨우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Or man, forsake thyself, to heaven turn thee, / Her flames enlighten nature, never burn thee”(Caelica 86.13-14). 하지만 드브루(James A. Devereux)의 지적대로 이 두 가지 대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27). 시인의 조언대로 자신을 견디고, 버리고, 천상으로 고개를 돌려 천상을 갈망하지 않았던 인간은 덧없는 삶과 허황되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삶을 허비한 후 뒤늦게 천상의 심판(“영원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보게 된다.

인간의 삶으로서 인간 욕망의 불꽃이
세속적인 램프의 소켓 안에서 불타오를 때,
그리하여 이 모든 영광이 곰팡내 나는 먼지로
세대는 타락으로 변해갈 때,
그때서야, 단지 자신들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허황된 욕망은
헛되이 삶을 갈망하지만, 수정될 뿐이다.

그러나 이 삶이 욕신에서 벗어나
영원의 거울에서 자신을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시간은 끝이 나고 생각은 죽은 자들을 기소한다,
그곳에서 앞으로 태어날 이들이 이미 존재했던 이들과 하나가 된다.
그때서야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숨을 떠났는지를 묻는다,
사는 동안 결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던 반면.

When as man's life, the light of human lust,
In socket of his earthly lantern burns,
That all this glory unto ashes must,
And generation to corruption turns;
Then fond desires that only fear their end,

Do vainly wish for life, but to amend.

But when this life is from the body fled,
To see itself in that eternal glass,
Where time doth end, and thoughts accuse the dead,
Where all to come, is one with all that was;
Then living men ask how he left his breath,
That while he lived never thought of death. (*Caelica*, 87)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았던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죄와, 타락, 천상의 심판에 대해 숙고하는 시인은 자신이 대면한 죄의 모습에 경악하고 좌절하지만, 이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신의 은총을 갈구한다.

오 주여, 인간의 타락에 둘러 쌓여있지만;
당신의 영원한 기쁨인 진리의 영광은
저의 영혼에 어두운 적막감과
지옥의 정령에 대한 끔찍한 전망을 비추어줍니다.
주여,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저의 죄업은
이 지옥을 받아 마땅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Wrapp d up, O Lord, in man s degeneration;
The glories of thy truth, thy joys eternal,
Reflect upon my soul dark desolation,
And ugly prospects o ver the sprites infernal.
Lord, I have sinn d, and mine iniquity,
Deserves this hell; yet Lord deliver me. (*Caelica* 98.1-6)

회개는, 특히 칼빈주의에 의하면, 종교의 핵심이자 본질로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다(Ho 38). “주여,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저의 죄업은 / 이 지옥을 받아 마땅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1연과 2연에서 반복되는 시인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담은 2행 연구는 3연에서는 변형되어 신의 구원과 은총에 대한 시인의 강한 갈망을 드러낸다:

“주여, 이 죄업의 공포로부터, / 그리고 끔찍한 무덤으로부터, 당신은 저를 구원해야 합니다” (Lord, from this horror of iniquity, / And hellish grave, thou wouldst deliver me). 소네트 99는 죄업의 암울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에게 전능하고 영원한 구원의 신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시인의 바람이 앞선 소네트 98의 반복된 2행 연구처럼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연과 2연의 2행 연구에서는 세속적인 은혜와 천상의 은혜를 박탈당한 채, 죄업을 치루는 시인에게 신이 나타난다: “Depriv d of human graces, and divine, / Even there appears this saving God of mine”(이탤릭 강조). 3연에서는 세속적인 은혜는 박탈당했으나 신의 은총이 남아있는 인간의 조건이 단어 하나의 차이로 효과적으로 재현된다; “Depriv d of human graces, not divine, / Even there appears this saving God of mine”(이탤릭 강조). 세속적인 은총은 박탈당했지만 신의 은총을 받은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인의 영혼이 구원받음을 알게 된다(“Depriv d of human graces, not divine / Thus hath his death rais d up this soul of mine”).

시드니의 사후에 그레빌은 시드니의 명성을 영원하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레빌 시대에 시드니만큼 많이 출판되고, 읽히고, 모방되는 시인은 없었을 것이다. 시드니의 사후 명성에 많은 공을 들인 그레빌의 관심은 죽음과 유한한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했던 그레빌 자신의 갈망에 다름 아닐 것이다. 죄와 죽음의 전리품인 개인이 그 유한성을 인식하며 동시에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이 육신을 끝내지만, 영혼은 끝내지 못할 때까지도.
그러니 독자여! 당신의 생전에 서두르라,
그러나 당신의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 놓으라.

You that seek what life is in death,
Now find it air that once was breath.
New names unknown, old names gone.

Till time end bodies, but souls none.

Reader! then make time while you be,

But steps to your eternity. (Caelica 82)

묘비명으로 해석되는 소네트 82는 인생은 짧고 무상하니, 절대적 영원을 추구하라는 조금은 식상한 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듯하다(Alexander 211, Dwyer 257).⁷ 삶과 죽음에 대한 진부하고 통념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소네트에는 매우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들이 aabb의 각운을 이루는 2행 연구로 짝을 이루어 등장하고, 삶과 죽음, 바람과 숨결,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름과 사라진 오래된 이름, 육체와 영혼, 그리고 시간과 영원과 같은 대립되는 개념을 대비한다. 1행에서 4행까지의 대립되는 단어들의 팽팽한 긴장은 4행의 “시간”이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균형이 흐트러진다(Pinsky, “The Pursuit of Form”).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죽음으로 숨결이 바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부분적이고 과편적일 뿐이다(Dwyer 258).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줄 새로운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오래된 이름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1행에서 4행까지 삶과 죽음, 인생의 진리에 관한 관념적 활동은 마지막 2행 연구의 서두르고 발을 들여 놓는 행위 동작과 다시 대응을 이룬다. 그레빌의 시를 읽는 독자는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이다. 그런 독자에게 그레빌은 “시간”과 “영원”을 모두 추구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조언을 남긴다. 모순적이지만 유한한 인간에게 죽음이 없는 생존 방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죽은 시인이 전하는 살아있는 지혜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주제어 | 『에스트로필과 스텔라』, 『소네트집』, 『카엘리카』, 페트라르카적 소네트, 죽음, 죄, 구원

⁷ 소네트 82의 순서가 연작시 내에서 잘못 정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Kristal 128).

인용문헌

- 윤민우. 「셰익스피어 『소넷』의 경제·성·텍스트: 상실의 바로크 시학」.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23. 2 (2014): 287-314.
- 임성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스펜서의 『아모레티』 읽기」. 『밀턴과근세영문학』 27. 1 (2017): 129-149.
- 홍성숙. 「죽음에 대한 비교 연구: 말로우, 던, 디킨슨, 로렌스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51. 4 (2009): 437-455.
- . 「르네상스 시에 나타난 죽음관」. 『人文科學論集』 39 (2009): 175-192.
- Alexander, Gavin. "Fulke Greville and the Afterlife." *The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62. 3-4 (2001): 203-231.
- Bacon, Francis. "Of Death." *The Essays*. Ed. John Pitcher. London: Penguin, 1985. 64-66.
- Devereux, James A. "Love Human and Divine in Fulke Greville's *Caelica*." *Christianity and Literature* 29.4 (1980): 19-31.
- Dwyer, June. "Fulke Greville's Aesthetic: Another Perspective." *Studies in Philology* 78. 3(1981): 255-274.
- Hamilton, A. C. "The 'mine of time': Time and Love in Sidney's *Astrophel and Stella*." *Mosaic* 13.1 (1979): 81-91.
- Greville, Fulke. *Selected Poems of Fulke Greville*. Ed. Thom Gunn. Chicago: The U of Chicago P, 2009.
- Ho, Elaine, Y. L. "Fulke Greville's *Caelica* and the Calvinist Self."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32, no.1 (1992): 35-57.
- Kristal, Peter L. "Greville's Well Framed Art: Essays on the Poetry of Fulke Greville, with Special Reference to *Caelica*." Diss. Brandeis Univ., Diss, 1975. Abstract. (n.d.): n. pag. Print.
- Montaigne, Michel de. "19. That we should not be deemed happy till after our death. and "20. To Philosophize is to learn how to die." *The Complete Essays*. Trans. M. A. Screech. London: Penguin, 1991. 85-108.
- Pinsky, Robert. "The Pursuit of Form: Learning to make effective shapes and arrangements of energy rather than particular required patterns." *Poetry Foundation*. 15 August 2013, www.poetryfoundation.org/articles/70037/the-pursuit-of-form. Accessed by 25 July 2017.
- Shakespeare, William. *The Sonnets*. Ed. G. Blakemore Evans. Cambridge: Cambridge UP, 1996.

Sidney, Philip. *Sir Philip Sidney*. Ed. Duncan-Jones, Katherine. Oxford: Oxford UP, 1989.

Stein, Arnold. *The House of Death: Messages from the English Renaissa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6.

K C I

ABSTRACT

The Concepts of Death Represented in Renaissance Sonnets: Focusing on *Astrophil and Stella*, *The Sonnets*, and *Caelica*

Kyung Jin Bae

What would Renaissance poets have thought about death?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concepts of death employed in Renaissance sonnets sequences. Death was traditionally understood as a law of nature or a direct punishment for Adam's disobedience. The major change in the response to death in the Renaissance was growing emphasis on the individuality of death as Protestant doctrine results in individual and inward meditation. Investigating Renaissance ideas of death leads to an examination of three basic concepts related to death: sin, time, and mortality. Petrarchan poet-lovers like Sir Philip Sidney, William Shakespeare, and Fulke Greville write about their intense experiences of love followed by the acute meditation on human misery and the conflict between ideal aspiration and real passion. "Loving in truth", Sidney concentrates on love in the present and triumphs over time not by escaping but by choosing to remain forever in the paradoxical state of sweet sorrow. Obsessed about immortal fame, Shakespeare reveals the will to overcome death through his works but eventually admits that death prevails over nature and man. Greville follows the lead of his friend Sidney in posing the problem of love as a seemingly impossible choice between virtuous love and individual desi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human love and faced with its frustrations, Greville meditates on human misery and sinfulness. Greville solves the dilemma of love by rejecting love and casting himself entirely upon the saving grace of God. *Caelica*, a collection of Greville's autobiographical works, constitutes the process of experience that the knowledge of sin leads to the knowledge of humility and ends in the renewal of faith before death. Writing about what it is to love does not prevent these writers from discovering and showing distinct and individual meditation of death.

Key Words | *Astrophil and Stella, The Sonnets, Caelica, Petrarchan Sonnets, death, sin, heavenly grace*

K C I

원고 접수 2017년 7월 21일 | 심사 완료 2017년 8월 17일 | 게재 확정 2017년 8월 22일